

느닷없는 시정명령에 준공 앞둔 연립주택 일부 철거 '날벼락'

잡음 끊이지 않는 광산구 건축행정 '난맥상'

건축주, 도시계획선 침범 확인 뒤늦게 허가변경 신청 '의혹' 공무원 유착설 등 논란도 사전입주 주민들 불안한 생활

5층짜리 연립주택이 다 지어진 뒤 느닷없이 철거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광산구의 '엠티리' 건축행정이 낳은 결과로, 건물 일부가 철거되는 등 불안한 환경 속에서 일부 주민들은 불법 입주한 '죄'로 철거가 진행되는 건물에서의 불안한 동거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28일 광주시 광산구 등에 따르면 구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476-1번지 일대 5층 규모 연립주택(연면적 1553㎡·16세대)에 대한 부분 철거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11년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지난 7월 5층 건물 대부분이 준공된 뒤 느닷없이 내려진 조치로, 해당 건축주가 준공을 앞둔 해당 건물의 도시계획선 침범 사실을 확인해 건축허가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광산구의 부분 철거 명령에 따라 연립주택 전체 세대 중 8세대의 경우 세대당 적게는 6.61㎡(2평), 많게는 13.22㎡(4평) 가량의 배란다·주방·안방 등을 철거해야 한다.

콘크리트 건물 대부분이 완공된 상황에서 철거 명령에 따라 세대당 일부를 두부 지르듯 절개, 재시공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미 일부 주민들은 준공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주 허가를 받아 불법 입주해 있는 상태다.

결국, 해머 소리가 끊이지 않고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건물에서 주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광산구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변경 신청



28일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에 지어진 5층 규모의 연립주택 일부가 흉측한 모습(왼쪽 점선)으로 철거되고 있다. 광산구는 2년 전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내준 뒤 지난 7월 준공을 앞두고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서를 낸 뒤에야 문제점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축주 뿐 아니라 구청도 건축 허가 과정에서 설계 도면이나 현장 확인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부실 행정'이 낳은 결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건축비리 사건이 잇따랐던 점과 맞물리면서 구청이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최근 광산구

건축 행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 주목, 건축주의 뒤늦은 건축허가변경 신청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 초기 해당 건물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사실을 알고도 수역원의 추가 공사비용을 걱정,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부랴부랴 허가변경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광산구는 올 들어서만 구 소속 공무원 18명이 뇌물·직무유기 등 비리 혐의로 적발돼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주민 B(53)씨는 "공무원 유착설과 브로

커 개입설이 파다했었다"며 "해당 건물의 경우 착공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관련 공무원이 준공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건물 사용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6세대가 입주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변경을 신청한 것을 보고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다"며 "현장확인 의무가 없어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건축사와 감리자에 대한 위법 보고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휴가 중 광주 자택서 자살한 상병 선임병 지속적 언어폭력 시달렸다

유족들 "군이 전역요구 목살"

휴가 중 광주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22) 상병이 선임병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7일 제1군수지원사령부에 따르면 강 상병이 선임병에게 욕설과 폭언을 당하고 관심병사로 낙인 찍히면서 동료 병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한다는 내용이 적힌 일기장과 메모가 발견됐다.

8군단 헌병대의 수사결과 제1군수지원사령부 산하 8군수지원단에 근무하는 강 상병은 A급 관심사병으로 한 선임병으로부터 갖은 욕설과 폭언 등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일기장과 유서행식의 메모장에는 "죽고 싶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유가족들은 "강 상병이 그린캠프에 입소한 뒤인 지난해 12월28일에 부대를 직접 방문해 담당 간부를 만나 심각한 상태임을 감안해 전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지 상담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2월께 강 상병의 소속부대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제1군수지원사령부에 제출했으나 '계속 복무만 장'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군 관계자는 "강 상병이 일부 복무를 기피하려는 성향을 보여왔고 주변 병사들의 도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군생활의 의지를 보이고 지난 5월에는 모병병사로 선발돼 포상휴가를 받는 등 회복단계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전역조치를 상부에 요청했는데도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서 젊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아들을 자살까지 이르게 한 소속부대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상병은 휴가 복귀날인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A아파트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박기용기자 pboxer@

체력검정 직후 의식불명

공군 제1전비 병사 숨져

공군 제 1전투비행단 소속 병사가 체력검정 직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8일 공군 제 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이 부대 이모(23) 병장이 영내에서 체력검정을 마치고 쓰러진 뒤 병원에서 치

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9시20분께 숨졌다.

이 병장은 지난 25일 정오께 체력검정 가운데 뒷목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에 이어 마지막 과목인 3km 달리기를 마친 뒤 쉬던 중 의식을 잃었다. 이후 이 병장은 인근에 있던 군의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복에는 실패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최전방 GOP 근무 병사들

잡초 제거 등 '잡일' 안한다

최전방 GOP(일반전조)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잡초 제거와 시설물 보수 등 속칭 잡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육군은 27일 "GOP 부대는 오로지 경제근무에만 전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그간 GOP 대대가 경제업무에 추가해서 각종 시설물 보수, 현장 DNA 결과에만 의존, 무리하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김은총기자 ejkim@kwangju.co.kr

다.

GOP 부대의 잡초 제거와 도로·하천·시설물 정비 등의 작업은 군단과 사단의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전담할 계획이다. 육군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GOP 부대에 대한 훈련·평가지침을 개선해 GOP 경제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만 훈련하며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GOP 부대 장병을 핵심 임무에만 집중시켜 경제작전에 전념토록 하지는 취지에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낮 만취 50대, 담배 한 개비 인준다며 배달원에 주먹질



○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오토바이 배달원을 폭행한 50대 취객이 경찰서행.

○28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모(53)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A음식점 앞길에서 우

연히 마주친 배달원 김모(22)씨에게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주먹으로 가슴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

○이씨는 김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유전자 감식 맹신했다 망신 당한 검·경

순천 노숙인 살해혐의 50대

광주고법 항소심 무죄 판결

수사기관이 유전자 분석(DNA) 결과에만 몰입, 불충분한 증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망신'을 당하게 했다.

27일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은 검·경의 DNA에만 의존한 수사를 엿볼 수 있는 정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별도의 절도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당시 순천경찰과 검찰은 지난 2005년 1월 순천시 풍덕동 폐가 마당에서 노숙인 송모(당시 53)씨를 살해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하면서 폐가 안방에서 발견된 김씨 피가 문은 화장지와 지문(指紋)이 나온 플라스틱 페트병, 부탄가스병 등을 증거로 냈다.

김씨가 방 안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우산과 동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십 회 마

구 내리쳐 살해했다는 게 수사 기관의 판단이었다.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서 진술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정황 등도 기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됐었다.

재판부 판단은 전혀 달랐다. 우선, 수사기관이 김씨가 살해 도구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던 깨진 소주병에서 김씨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그나마 김씨 왼손 지문이 발견된 플라스틱 페트병도 송씨를 내리쳐 쓰러뜨린 도구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머리가 다쳐 숨진 송씨의 피가 문은 동

파이프에도 김씨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돼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는 김씨가 왼손으로 페트병을 쥐고 내리쳤다는 기소 내용도 살인 혐의를 판단하기에는 무리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여기에 검·경이 김씨 흔적이 없었던 소주병에 대해 김씨 지문이 묻어 있음을 전제로 김씨를 추궁, 폭행 사실을 자백받은 점도 혐의를 인정하기에 무리라고 판단했다. 결국, 검·경은 김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기는 커녕, 현장 DNA 결과에만 의존, 무리하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김은총기자 ejkim@kwangju.co.kr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주인 직매함 010-3605-5000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건물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 4층-35평, 주택

■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임 → 대지 전체, 건물 1/3 지분 낙찰 → 건물 1/3 지분 일반 매입 → 건물 1/3 지분 낙찰

■ 시세 및 감정가-7억2천만원 일시불 매매가-5억2천만원

■ 전체/일부 리모델링 해야 함

■ 공인 중개사 공동 중개 환영



29평-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형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시 세-1억원 정도 매매가-72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오피스텔 매매

수기등 제일 오피스텔

77평-20층

사무실 전용 창가 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 세-3억5000만원 매매가-2억5500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

부동산 경매

▶특수 비법 배움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연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10억원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